

장기 재생 전략 세워 충장로 옛 명성 되찾아야

100년 전통 충장로상권 ‘광주의 심장’이 식어간다

<5> 위기의 충장로, 이대론 안된다

광주 충장로가 ‘광주 중심가’로서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물주, 상인들과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장기 재생 전략을 세우며 임대료 인하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적인 전략과 특색이 없는 상태에서 단발적인 재정 투입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끊기’식의 혈세 낭비만 되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합리적 임대료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자영업자들에게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차 없는 거리’ 등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거리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권이 곳곳으로 분산되면서 충장로 지가가 수십 년간 지속 하락해 온 만큼, 임대인들이 현재 임대료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현실에 맞게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충장로 ‘평값’이 수십년간 하락해 있는데도 상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고수하면서 공실이 느는 등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인들에 험들리지 않고 거리 정체성·차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분명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정작 상인들이 “상·하차 할 때 불편

하다”고 반대하자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상인 협조의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단발 성 행사 사업만 반복하고 장기적 개선계획, 인프라 확충 등에 소홀했던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당장, 5개년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만 하더라도 ‘장기적 비전’이 속 빠진 채 단발성 사업만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행사·교육 등 프로그램 사업이 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장라온페스티’ 축제에 20억7200만원, ‘골목여행’에 7억1100만원이 투입되는 등 행사에 예산이 집중된 것이다.

동구는 “장기적인 사업은 예산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시설 등을 설치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추후 수리, 정비 등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비중을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대신 행사, 축제,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을 높이다 보니 단발성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단호하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성수동 상권을 들고 있다.

이곳은 과거 낙후 공장지역에서 최근 골목 브랜드를 선도하는 특화 거리로 거듭났다. 행정청이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대기업·프랜차이즈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임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업종 다양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충장로도 전통상과 역사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충장로만의 특색을 연구 및 구축하고 서사와 공간 자산을 브랜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지금의 프랜차이즈 일색인 획일적 골목 구조에서 벗어나 ‘노포(老鋪·오래된 점포)’ 지원 등을 통해 차별화된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원도심 자체의 상주·유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도시 재생 전략을 병행하고, 도시 재생 차원에서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 거점시설을 원도심 일대에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타 상권과의 비교 분석과 기존 사업의 실패 원인 진단을 토대로 상인과 행정이 함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장도 “충장로를 위해 지자체가 할 일은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예술 인프라와 역사적 자산을 맑천 삼아 골목에 펼어내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수 있는 입체감 있는 상권을 만드는 것”이라며 “단순히 멀리와 쇼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끝〉

/윤준영 기자 yoon@



광주시 동구 충장로 상권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생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거리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성탄절 충장로가 모처럼 붐비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구례 섬진강 케이블카 첫 삽 떴다

지리산~사성암 2.34km…관광 활성화 기대 속 환경 훼손 우려도

‘구례 오산권역 섬진강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전남 내륙권에 조성된 케이블카 중 가장 긴 노선으로 지역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사업의 과제로 꼽힌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 7일 섬진강 케이블카 하류 정류장 건설 부지에서 지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 오산권역 섬진강 케이블카 설치사업’ 기공식을 기졌다.

구례군은 군비(71억원)와 민간 자본(470억원)을 투입, 구례읍 봉서리부터 문적면 죽마리 까지 총연장 2.34km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섬진강과 지리산, 사성암 등을 둘러볼 수 있어 전남 대표 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례군은 지난 2024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전남도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구례 관광의 새로운 구심점이자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단체는 시설의 안정성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오산 케이블카는 ‘오산권역 관광 벨트’라는 후속 투자 없이는 경유형 관광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구례군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구조물에 의한 경관 훼손은 물론, 공간이 협소한 정상부에서의 압사·낙상 등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검증된 대안 없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의 미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농어촌진흥기금 용자금 전남도, 상환 1년 유예

지난해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농어촌 진흥기금 용자금 상환이 1년 간 유예된다.

상환 유예 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빌린 전남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전남지역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은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기공·유통회사 10억원까지만 1%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진흥기금 상환을 앞둔 53개 농가(12억 5000만원)가 2027년까지 상환 기한이 늦춰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상환 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13일까지 기존 용자를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해와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군, 부적격업체와 용역 계약 등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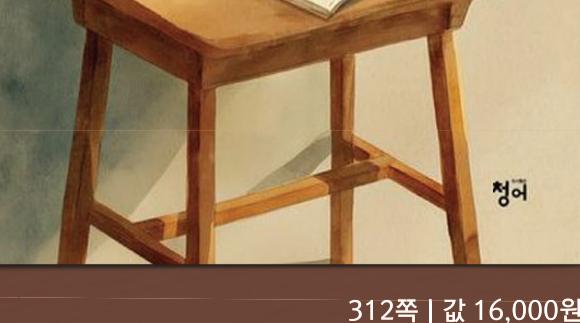
도, 감사서 47건 위법·부당

해 원래대로라면 84.04점으로 적격 기준(85점)을 밟돌아야 하는 A기업이 85.04점을 받아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신안군은 또 지난해 7월 B업체와 계약을 맺은 또 다른 용역에서도 B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이의 용역 수행실적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B업체 역시 원래대로라면 실적부족으로 부적격(82.08점)돼야 했지만, 신안군의 부적절한 행정으로 용역계약을 낙찰 받았다. 전남도는 계약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신안군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했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1억 4000여만원짜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년고용 우수기업(고용인원 연령 만 18~29세 미만)에 주어지는 점수(1점)를 대상이 아닌 A사에게 부여했다. 이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312쪽 | 값 16,000원

生

누가 호박꽃도 꽂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톳 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지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밥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태어날 生(生)이냐,

살아갈 生(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점), 목포(연산서점)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의산(동아서점)